

難經證 鍼灸治療篇에 對한 研究(I)

金春培 · 金容辰 · 尹暢烈*

I. 緒 論

《黃帝內經》은 《內經》이라 簡稱하는데, 東洋醫學에서 現存하는 最古의 醫書이다¹⁾. 특히 《內經》의 基本理論部分은 過去 醫學理論의 總結일 뿐만 아니라, 以後 一千餘年 韓醫學 理論의 準則이 되었다. 韓醫學 理論이 宋元 이후에 發展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內經》의 規範을 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東洋醫學의 臨床面에서 《內經》은 아직도 대단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²⁾. 그런 意味에서 볼 때 最近 들어 《素問》, 《靈樞》의 體系的인 研究와 國譯에 重點을 둔 論文들이 多數 報告되고 있는 것은³⁾ 매우 바람직한 現狀이라고 생각된다.

《內經》以外的 書籍中에 가장 먼저 體系的인 研究를 必要로 하는 書籍은 《難經》이다. 《難經》의 原名은 《黃帝八十一難經》으로⁴⁾ 問答의 形式으로 古醫經을 解釋한 理論書이다. 全書는 모두 81個 問題를 討論하였으므로 《八十一難》이라고 稱한다.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見解들을 綜合해 보면, 《黃帝內經》과 秦越人扁鵲의 醫學思想을 이어 받은 後代人들의 修訂, 補完을 거쳐 東漢人에 依하여 著作된 것으로 보인다⁵⁾.

한편, 《難經》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本을 注解·注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の 錯簡과 缺漏를 찾고, 篇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회복하기 위한 校勘을 시도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難經》에 最初로 註를 한 사람은 三國時 吳의 太醫令 呂廣으로 알려졌으며 以後 數十家의 程註家에 의해 數十種의 註解書가 傳해 온다⁶⁾.

《難經》에서 討論한 問題는 大部分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니 《難經》은 《內經》을 研究하기 위한 入門書⁷⁾이며 《內經》의 理論을 明確하게 說明을 加한 註釋書이며 《內經》의 核心을 整理한 重要한 書籍이다. 그러나 《難經》의 特長은 《內經》을 뛰어 넘는 獨創性에 있다⁸⁾. 脈學部分에서는 脈診의 趨勢가 氣九一處로 集中됨을 表現하였고, 經絡部分에서는 奇經八脈의 說을 提出하였고, 臟腑部分에서는 左腎右命門說을 提出하고 아울러 腎間動氣의 作用을 強調하여 後世 命門學說의 先端을 열었으며, 以外에 또한 三焦有名而無形의 說을 提示하였고, 疾病部分에서는 傷寒을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의 五種으로 分流하였고, 積聚를 臟腑에 分屬시켜 積은 五臟에서 生하고 聚는 六腑에서 生한다고 하여 具體的으로 五臟의

2) 洪元植, 上揭書, p41.

3) 李晚熙,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에 對한 研究, 大田, 大田大學校大學院, 1994年, p1.

4)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年, p1.

5) 洪元植, 上揭書, p95.

6) 千柄泰, 上揭書, p2.

7) 上揭書, p3.

8) 上揭書, p3.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年, p40.

積의名稱 및 症狀 등을 記述하였고, 俞穴 方面에서는 八會穴의 作用에 對하여 創論 하였으며, 針灸治療方面에 있어서는 虛者 補其母 實者瀉其子의 原則 등을 提示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 以後의 東洋醫學發展에 對하여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다⁹⁾.

《難經》은 內容上 ①脈學篇(第一難~第二十二難), ②經絡篇(第二十三難~第二十九難), ③臟腑篇(第三十難~第四十七難), ④疾病篇(第四十八難~第六十一難), ⑤俞穴篇(第六十二難~第六十八難), ⑥鍼法篇(第六十九難~第八十一難)으로 크게 여섯개의 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鍼法篇에서는 鍼刺補瀉法의 實際運用에 對해서 討論하고 있으니 迎隨補瀉法, 刺井瀉榮法, 補母瀉子法, 補水瀉火法, 子母迎隨補瀉法 등을 包括한다. 同時에 補瀉의 步驟, 手法 및 誤用時에 發生하는 不良한 結果에 對해서도 詳細한 討論을 하였으니 補瀉法을 올바르게 運用하면 能히 人體의 正氣恢復과 邪氣衰退를 促進하여 疾病을 除去하지만 만약 補瀉를 反대로 施行하면 不良한 結果를 惹起시키게 된다. 以外에도 또한 進鍼, 出鍼, 留鍼待氣 등 多種의 手法를 紹介하였으며 不同한 季節에는 不同한 穴位를 取穴하며 刺鍼時에도 이에 따라 淺深의 서로다른 原則이 있음을 提示하여 臨床에서 “治未病”의 原則을 強調하였다¹⁰⁾.

이에 筆者는 《難經》中에서 主로 鍼灸治療에 對하여 많은 論議를 하고 있는 第六十九難에서 第八十一難까지를 “鍼法篇”으로 分類하고, 그에 對한 國譯, 校勘 및 字句解, 그리고 收集 可能한 모든 註釋書의 懸吐 및 現代 解說書의 研究를 통하여 體系의인 研究를 試圖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過程中에 《難經》에 나타난 鍼灸治療 理論에 對하여 몇 가지 얻은 點이 있었기에 考察을 통하여 紹介하였다. 一次

的으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原則을 提示한 六十九難과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理致를 說明한 七十難에 對하여 약간의 所得이 있기에 이에 報告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本篇의 全盤的인 理解를 돕고 內容을 比較, 研究하기 위하여 各 難別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對한 解釋을 하였고, 校勘, 字句解를 加하였다. 各家注를 引用하여 그 중 中文은 縣吐하였으며, 現代文은 解釋하였다. 마지막으로 各 難에 關한 學術的인 考察을 하였다.

1)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2) 縣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3)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爲主로 하되 各 註釋들 中에서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爲主로 意譯을 加하였다.

4) 校勘은 各 引用文獻 中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여 전체적 文義에 비추어 보아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것을 決定하여 提示하였다.

5) 字句解는 原文 中에서 難解한 部分에 對하여 各 注家들의 意見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爲主로 比較 說明하였다.

6) 各家注는 아래에 提示할 引用 文獻의 註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提示하였고, 縣吐 以外에 註釋 內容의 理解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은 脚注로 處理하여 提示하였다. 단, 中國의 文獻을 于 先 앞에 提示한 後, 뒤에 日本의 文獻들을 提

10) 王洪圖等, 難經, 北京, 中外文化出版公司, 1988年, p97.

* 本 論文集 編集關係로 著者와의 相議하에 ‘原文’ ‘各家注’ ‘考察’을 除外한 모든 部分을 省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9) 洪元植, 前揭書, p95.

示하였다.

7)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들을 土臺로 各 難의 學術的인 內容들에 對해서 總括하여 整理하였다.

8) 考察 中에 內容을 理解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對한 內容과 各家에 對한 解說이나 注釋의 補充 說明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各家에 對한 說明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參考하였다.)

9)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 校勘은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각주는)로 表示하였다.

10) 本 論考의 特性上 不得已한 境遇에 是 引用文獻의 注釋 篇次를 바꾸기도 하였다. 단, 全體의인 文意에는 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注解書는 아래의 圖表*와 같다. 各 注釋書의 時代와 順序는 千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中 “難經의 註解書 目錄”¹¹⁾을 參照하였다.

III. 研究 內容

1. 第六十九 難

【原文】

六十九難曰 經言 虛者是 補之하고 實者是 瀉之하며 不虛不實은 以經取之라하니 何謂也⁽¹⁾오 然이라 虛者是 補其母하고 實者是 瀉其子하니 當先補之하고 然後에 瀉之⁽²⁾니라 不虛不實 以經取之者는 是正經自生病이오 不中他邪也라 當自取其經이니 故로 言以經取之⁽³⁾라

【各家注】

《本義》

靈樞第十篇 載十二經에 皆有 盛則瀉之

하고 虛則補之하며 不盛不虛는 以經取之라하고 虛者補其母하고 實者瀉其子하니 子能令母實하고 母能令子虛也라 假令肝病에 虛即補厥陰之合하니 曲泉이 是也오 實則瀉厥陰之榮하니 行間이 是也라 先補後瀉는 即後篇의 陽氣不足하고 陰氣有餘하면 當先補其陽하고 以後瀉其陰之意라 然이나 於此에 義| 不屬하니 非闕誤오 即衍文也라 不實不虛 以經取之者는 即四十九難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飲冷則傷肺云云者니 蓋正經之自病者也라

楊氏曰 不實不虛는 是謂 藏不相乘也라 故로 云自取其經이라

《集注》

丁曰 此經은 先立井榮俞經合하여 配象五行하니 即以十二經中에 各有子母遞相生 養하고 然後에 言用鍼補瀉之法也라 假令足厥陰肝之絡中이 虛하면 即補其足厥陰經合하니 是母也오 實하면 即瀉足厥陰經榮하니 是子也라 如無他邪하면 即當自取其經이니 故로 言以經取之也라

楊曰 春得腎脈爲虛邪니 是는 腎虛하여 不能傳氣於肝이라 故로 補腎이라 腎有病則 傳之於肝하니 肝爲腎子라 故로 曰 補其母也라 春得心脈爲實邪니 是는 心氣盛實하여 逆來乘肝이라 故로 瀉心이라 心平則肝氣通하니 肝爲心母라 故로 曰 瀉其子也라 不實不虛는 是諸藏不相乘也라 春得弦多及但弦者는 皆是肝藏自病也니 則自於足厥陰少陽之經 而補瀉焉이오 當經에 有金木水火土하니 隨時而取之也라

《圖註》

十二經中에 各有井取火經合하여 配象五行子母라 母는 生我者也오 子는 我生者也라 母能令子虛니 虛則補其母하고 子能令母實이니 實則瀉其子라 假令 肝自病에 得肝脈하여 善潔 面青 善怒호대 其脈實強하면 則瀉胆經火穴이니 陽火乃木之子也오 脈虛微하면 則補膀胱經水穴이니 水乃木之母也라 餘倣此하라 假令 善潔 面青 口乾

* ‘難經중 脈學條에 關한 研究’ 論文을 參考 하시기 바랍니다.

11) 千柄泰, 上揭書, pp.40-42.

喜笑하면 瀉少陽之火 | 有之하고 實者 | 亦有之하니 當先補其不足하고 後瀉其有餘라 若本經自病하야 不中他經이면 其眞氣 | 未虛하고 邪氣 | 未盛하니 當以本邪金木水火土 隨時而取之也라

《經釋》

[1] 虛는 血氣虛也오 實은 血氣實也라 補之는 行針에 用補法也오 瀉之는 行針에 用瀉法也라 其說 素離合眞邪論 等篇의 以經取言은 循其本經하야 所宜刺之穴也라

[2] 母는 生我之經이라 如肝虛則 補腎經也니 母氣實則生之益力이라 子는 我生之經이라 如肝實則 瀉心經也니 子氣衰則食其母 | 益甚이라 詳見下文七十五難이라

[3] 正經自病은 如四十九難所云之類也라 自取其經은 卽於本經所當刺之穴이오 不必補母瀉子也라

《正義》

經은 言 靈樞經脈篇也라 虛는 血氣虛也오 實은 血氣實也라 補之는 行鍼에 用補法也오 瀉之는 行鍼에 用瀉法也라 以經取之는 言循其本經所宜刺之穴也라 母는 生我者也오 子는 我生者也라 經脈篇載 十二經에 皆有 盛則瀉之하고 虛則補之하며 不盛不虛는 以經取之라하고 虛者補其母하고 實者瀉其子하니 蓋子能令母實하고 母能令子虛也라 假令肝病에 虛則補其母合하니 卽足厥陰之合曲泉穴이 是也오 肝病에 實則瀉其子榮하니 卽足厥陰之榮行間穴이 是也라 當先補之 然後瀉之 兩句는 滑氏謂 卽後篇의 陽氣不足 陰氣有餘면 當先補其陽 而後瀉其陰之意라 然이나 於此에 義 | 不屬하니 非厥誤오 卽羨文也라하니라 若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飮冷則傷脾하며 志怒氣逆則傷肝하고 飮食勞倦則傷脾하며 久坐濕地 強力入水則傷腎은 正經自病이오 非五邪所傷者니 卽於本經取當刺之穴하야 以刺之오 不必補母瀉子也라

《闡註》

此章은 言 針刺經穴補瀉之大法이니 而

亦可推之於用藥也라 子母는 以五行配臟腑 而推之라 先補之 然後瀉之者는 言欲瀉其子면 而必先補其母也니 可見 古人必以固本爲要明矣라

《懸解》

經은 靈樞經脈이라 自取其經은 取其本經이오 不取其子母也라

《匯海》

楊玄操注 [2-3] 春得腎脈爲虛邪니 是는 腎虛하야 不能傳氣於肝故로 補腎이라 腎有病則 傳之於肝하니 肝爲腎子라 故曰 補其母也라 春得心脈爲實邪니 是는 心氣盛實하야 逆來乘肝 故로 瀉心이라 心平則 肝氣通하니 肝爲心母라 故曰 瀉其子也라 不實不虛는 是諸藏不相乘也라 春得弦多及 但弦者는 皆是肝藏自病也니 則自於足厥陰 少陽之經而 補瀉焉이오 當經에 有金木水火土하니 隨時而取之也라

滑伯仁注 [2] 靈樞經脈篇 載 十二經에 皆有 盛則瀉之하고 虛則補之하며 不盛不虛는 以經取之라하고 虛者補其母하고 實者瀉其子하니 子能令母實하고 母能令子虛也라 假令肝病에 虛卽補厥陰之合하니 曲泉이 是也오 實則 瀉厥陰之榮하니 行間이 是也라 先補後瀉는 卽 後篇의 陽氣不足하고 陰氣有餘하면 當先補其陽하고 以後瀉其陰之意라 然이나 於此에 義 | 不屬하니 非闕誤오 卽衍文也라 不實不虛 以經取之者는 卽四十九難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飮冷則傷肺 云云者니 蓋正經之自病者也라

徐靈胎曰 靈素補瀉之法은 或取本經하고 或雜取他經하며 或先瀉後補하고 或先補後瀉하며 或專補不瀉하고 或專瀉不補하며 或取一經하고 或取諸三四經하니 其說俱在 하야 不可勝舉라 則補母瀉子之法은 亦其中之一端이니 若竟以爲補瀉之道盡如此하면 則不然也라

재同甫注 [2] 難經曰 虛則補其母하고 實則瀉其子라하니 虛當補母는 人所共知라

千金曰「心勞甚者 補脾氣以逆之하니 脾旺則感於心矣라」하니 此乃勞則補其子하니 人所未聞이라 蓋母는 生我者也오 子는 繼我而助我者也라 方其虛則補其生我者하니 與郭葬書本骸得氣 遺體受蔭同意라 方治其勞 則補其助我者하니 與荀子所謂未有子富而父貧으로 同意라 此] 補虛與治勞之異也라

日醫騰萬卿注 [2-3]補法爲隨오 瀉法爲迎이라 若夫以經取之 則非刺子母 而刺屬己者라 且夫謂 母能令子虛라하니 則補母者는 治其本也니 其病從母及子也오 謂子能令母實이라하니 則瀉子는 治其末也니 其病從子加母也라 是皆他邪所爲者爾라 正經自病者는 本經之氣失常하야 則流行錯亂이라 故로 用鍼에 治其經氣而已라 是其非有虛 又非其實이니 則何迎隨之施哉리오 余觀本邦 輓近之世하니 用鍼治病은 率皆經刺一法 而未嘗聞有全行迎隨子母法이라 況若 前諸編所載 取五輸法 亦唯塵塵參星 殆幾幾乎熄 悲夫 古者聖賢苦口丁寧 垂教萬世 徒存方策 被蠶魚害噫

丁履中曰 [2]瀉其子而必先補其母也니 可見古人必以固本爲要明矣라

《校注》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治療原則에 對한 各家의 注釋은 具體的인 應用에 있어서 서로다른 意見을 보인다. (一)經脈에 所屬된 臟腑의 五行屬性에 根據함. 예를들어 徐大椿은 이르길 「母는 生我之經이라 如肝實하면 瀉心經也니 子氣衰則食其母益甚이라」하였다. (二)本經經脈五俞穴의 五行屬性에 根據함. 예를들어 丁德用은 이르길 「此經先立井, 榮, 俞, 經, 合 配象五行 卽以十二經中 各有子母遞相生 然後用針補瀉之法也 假令足厥陰肝之絡中 虛卽補其足厥陰經合 是母也 實卽瀉足厥陰經榮 是子也」라하였으니 以上の 兩說을 살펴봄에 마땅히 第一說이 타당하다.

原文에 敍述된 바에 의하면 「自取其經

」의 俞穴은 「不中他邪」의 「正經自病」에 使用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理致를 逆으로 추리해보면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마땅히 「五邪所傷」의 病에 使用하여 虛則補其母經하고 實則瀉其子經한다.

《校釋》

一. 虛補實瀉의 治療原則은 《靈樞·經脈篇·禁服篇》에 보인다. 本難은 五行相生의 理論을 使用하여 解釋하였으니 卽臟腑經脈所屬五行의 母子關係에 根據하여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治療方法을 使用하여 偏盛偏衰를 調節하므로써 扶正祛邪, 疾病治愈의 目的을 이루는 것이다.

針灸治療의 運用上에 있어서 子母補瀉는 一般的으로 두가지 方法이 있다.

1. 本經의 井, 榮, 俞, 經, 合의 五行關係(第 64難에 보임)에 根據하여 補瀉를 行함. 만일 肺經氣虛하면 肺經本經의 俞穴 太淵을 取하니 太淵穴은 土에 屬하고 土는 金의 母가 되므로 이것이 虛者補其母가 된다. 만일 肺經氣實하면 本經의 合穴 尺澤을 取하니 尺澤穴은 水에 屬하고 水는 金의 子가 되므로 이것이 實者瀉其子가 된다.

2. 十二經所屬臟腑의 五行關係에 根據하여 補瀉를 進行함. 만일 肺經氣虛하면 虛者補其母의 方法에 따라 肺는 金에 屬하고 土는 金의 母가 되니 마땅히 足太陰脾經의 穴位을 取하거야 或은 脾經의 俞穴 太白(屬土)을 取한다. 만약 肺經氣實하면 實者瀉其子의 方法에 따라 腎은 水에 屬하고 水는 金의 子가 되니 腎經의 穴位을 取하거나 或은 腎經의 合穴 陰谷(屬水)를 取한다.

所謂「不實不虛 以經取之」는 本經에서 스스로 發한 病을 말하는 것으로 他經虛實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 病變 自體에 또한 虛實의 區分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治療時에 其他經

脈上에서 補母 或은 瀉子하는 것이 不必하며 다만 本經의 虛實狀況을 살펴서 本經의 俞穴을 取하여 補瀉方法을 使用함으로써 治療의 目的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喉, 胸, 肺와 關係된 病症에서는 手太陰肺經의 血位를 爲主로 取穴하고 胸, 心, 神志와 關係된 病症에서는 手少陰心經의 經穴을 爲主로 取穴한다.

補母瀉子の 治法은 또한 絶對的인 것이 아니니 《難經經釋》에서 말하길 “《內經》補瀉之法을 살펴보면 或取本經하고 或雜取他經하며 或先瀉後補하고 或先補後瀉하며 或專補不瀉하고 或專瀉不補하며 或取一經하고 或取三四經하니 其說俱在하여 不可勝舉라 則補瀉之法은 亦其中之一端이니 若竟以爲補瀉之道盡如此하면 則不然也라” 하였다.

二. 原文中에 “當先補之 然後瀉之”의 一句가 上下文과 더불어 서로 關聯이 없으니 《難經本義》와 《難經滙注箋正》에서 모두 錯誤라고 認識하였다.

《譯釋》

人身各經脈의 氣는 相互間에 모두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發病後및 治療效果에서 더욱이 잘 表現된다. 經氣의 偏虛偏實에 관계없이 모두 相互影響을 줄 수 있으니 治療에 있어서 반드시 그 虛實이 發生한 原因을 探究하여 五行學說中의 “母能令子實 子能令母虛”의 理論을 結合하여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方法을 使用하여 平衡을 調節함으로써 疾病治療의 目的에 到達할 수 있다. 만일 “不虛不實”의 正經自病이라면 다만 本經의 經穴을 取함으로써 治療할 수 있다. 補母瀉子와 本經取穴의 方法을 아래에서 간략히 紹介한다.

一. 子母補瀉法: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治療方法은 針灸治療上의 運用到 있어서 本經의 井, 榮, 俞, 經, 合穴을 取穴하여 治療하는 것과 十二經整體性的

連繫下에 取穴하여 治療하는 두가지 方面으로 나눌 수 있다.

(1) 本經 井榮俞經合補瀉法: 예를 들어 肺經氣虛하면 肺本經의 俞穴 太淵을 取하니 太淵穴은 土에 屬하고 土는 能히 金을 生하니 이것이 虛者補其母이다. 가령 肺經氣實하면 實者瀉其子의 方法을 應用하여 本經의 合穴 尺澤(屬水)穴을 取하여 治療한다.

(2) 十二經 五臟補瀉法: 人體의 整體性을 바탕으로하여 十二經을 基礎로 삼는다. 만일 肺經의 氣가 虛하면 虛者補其母의 法則에 따라 肺는 金에 屬하고 土는 金의 母가 되니 마땅히 足太陰脾經의 腧穴을 取한다. 또한 同時에 이 經의 腧穴 太白(屬土)을 取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肺經의 氣가 實하면 實者瀉其子이니 腎經의 腧穴을 取할 수 있고 또한 同時에 이 經의 合穴, 陰谷을 取하여 治療할 수 있다. 肺의 子가 腎이며 腎은 水에 屬하고 陰谷 또한 水에 屬하므로 瀉水하여 肺實을 治療하니 이것이 子能令母虛의 理致이다.

二. 不實不虛와 以經取之: 所謂不實不虛에서의 虛, 實은 위의 虛, 實과는 相對되는 말이다. 따라서 以上에서 말한 ‘疾病에는 虛가 있고 實이 있다’는 것은 아울러 또한 그 病이 他經에서 傳變되어 온 것을 말하며, 不虛不實은 本經自病에 屬하여 他經에서 傳變되어 온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 볼때 病症狀의 不虛不實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진실로 不虛不實하여 서로 均衡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病이 없는 것이니 어찌 以經取之의 方法이 必要하겠는가? 따라서 여기에서 말한 不實不虛는 本經自病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病變에도 實際로는 虛實의 區分이 있으니 治療時에 반드시 本經虛實의 狀況을 살펴서 補瀉의 方法을 使用하여야 治療의 目的에 到達할 수 있다.

補母瀉子治法의 應用에 關해서는 또한

반드시 疾病의 具體的인 狀況을 살펴서 決定해야 한다. 後世에 또한 이 한가지 法則의 運用에 있어서 針灸上에만 局限되지 않고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指導原則을 定하고 있다. 만일 肺虛할 때는 培土生金法을, 肝實할 때는 瀉火平木法등을 使用하니 모두 같은 意味이다.

徐靈胎가 말하길: “內經補瀉之法은 或取本經하고 或雜取他經하며 (或先瀉後補하고) 或先補後瀉하며 或專補不瀉하고 或專瀉不補하며 或取一經하고 或取三四經하니 其說俱在하여 不可勝舉라 則補母瀉子之法은 亦其中之一端이니 若竟以爲補瀉之道盡如此하면 則不然也라” 하였으니 徐氏의 意見은 正確한 것이다. 이것은 다만 相生規律과 母子虛實을 結合한 一種의 方法일 뿐, 以外에도 또한 相剋規律과 陰陽을 結合한 第二 第三 등등의 方法으로 治療해야 한다. 만일 相生方面의 母子補瀉에 局限한다면 治療의 能事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難經》

本難은 五行相生規律에 根據하여 虛證에는 發病한 經脈의 母經母穴을 補하고 實證에는 發病한 經脈의 子經子穴을 瀉하라는 子母補瀉法으로 經氣의 偏盛偏衰를 調節하므로써 扶正祛邪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他經에서부터 傳變되어오지 않은 本經自發病에 對해서는 마땅히 本經穴位를 取하여 治療한다. 十四經에 모두 各自의 發病規律과 主治範圍가 있으니 臨床에서 隨證選用할 수 있다.

《今釋》

《靈樞·經脈篇》에 十二經에 모두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라는 說明이 있으니 첫 句節에서 말한 經言은 즉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本篇에서 講述한 補母瀉子의 治療方法은 五行相生의 原理에 根據한 것이니, 例를 들어 木生火 火生土하니 火의 母는 木이 되

고 火의 子는 土가 된다. 만일 心火가 虛하면 그 母인 肝木을 補하고 心火가 實하면 그 子인 脾土를 瀉한다. 其他 여러가지도 이처럼 類推할 수 있다. 이러한 補母瀉子의 原理는 中醫學의 方藥및 針灸治療上에서 모두 適用된다. 方藥治療上에서 만일 肺金이 虛弱하면 健脾土하는 藥物을 常用하여 治療하니 培土生金法이라고 하고 脾土가 虛弱하면 補心火하는 藥物을 常用하여 治療하니 補火生土法이라고 한다. 또한 만일 肝木이 盛하면 瀉心火하는 藥物을 投與하고 心火가 盛하면 瀉脾土하는 藥物을 投與한다. 以上에서 列舉한 補母瀉子의 治療는 方藥應用上에서 또한 常見하는 낯설지 않은 것이다. 本篇의 敘述은 針灸治療에 偏重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針灸上에서 子母補瀉에 關한 것은 두가지 觀點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說明한다.

一. 井榮俞經合의 補瀉法: 所謂 虛者補其母는 만일 肺經氣虛하면 肺本經의 俞穴 太淵을 取하니 太淵穴은 土에 屬하고 土는 能히 生金하니 卽 補其母가 된다. 所謂 實者瀉其子는 만일 肺經氣實하면 本經의 合穴 尺澤을 取하니 尺澤穴은 水에 屬하고 水는 金의 子가되니 卽 瀉其子가 된다.

二. 十二經五腧의 補瀉法: 十二經으로써 論하면, 만일 肺經氣虛하면 虛者補其母의 原理에 따라 肺는 金에 屬하고 土는 金의 子이므로 마땅히 足太陰脾經의 腧穴을 取하며 또한 그 經의 俞穴 太白을 取할 수도 있다. 만약 肺經氣實하면 實者瀉其子이니 腎經의 腧穴을 取하며 또한 그 經의 合穴 陰谷을 取하여 治療할 수 있으니 肺의 子는 腎이고 腎은 水에 屬하며 陰谷 또한 水에 屬하니 瀉水하여 肺實을 治療하는 것이 實者瀉其子의 理致이다.

補母瀉子의 針法上에서 運用은 以上에서 敘述하였다. 다만 經文中에 또 말한 「當先補之 後瀉之」는 어떤 것이 先補後瀉가 됩니까? 古本難經闡注의 作者 丁綿氏

는 이 解釋에 對해서 「先補之 然後瀉之者는 言欲瀉其子也 而必先補其母也니 可見 古人必以固本爲要明矣라」라고 하였으니 古人은 古本을 重視하고 아울러 先補後瀉의 原則을 說明하였다. 末端에서 說明한 正經自病의 不虛不實은 裏에서 말한 不虛不實이며 아울러 病症狀의 不虛不實은 아니다. 他經에서 傳來된 病邪가 아니라 正經에서 自發한 病變이니 다만 發病한 本經에서 取穴하여 治療하라는 意味이다.

《難經古義》

按컨대 此는 承前篇하야 再發問答하니 以斷靈素所言이라 不虛不實 以經取之之語는 審其立問之意면 子母補瀉之義를 前既已悉言이니 則非所發疑니 喻議補瀉之外에 別有經刺一法耳라 蓋補法爲隨오 瀉法爲迎이니 若夫以經取之則 非子母而刺屬己者라 且夫謂母能令子虛라하니 則補母者는 治其本也니 其病從母及子也오 謂子能令母實이라하니 則瀉子者는 治其末也니 其病從子加母也라 是는 皆他邪所爲者爾라 正經自病者는 本經之氣 失常하면 則流行錯亂이라 故로 用鍼에 治其經氣而已라 是其非有虛 又非有實이니 有何迎隨之施哉리오 余觀本邦 輒近之世 用鍼治病은 率皆經刺一法이니 而未嘗聞有全行迎隨子母法이라 況若前諸篇所載 取五輸法 亦唯塵塵參星 殆幾乎熄 悲夫 古昔聖賢 苦口丁寧 垂教萬世 徒存方策 被蠹魚害 噫

《哀腋》

靈樞經脈篇 十二經에 皆有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之文이라 越人之意는 蓋謂 虛者補之는 補其母也오 實者瀉之는 瀉其子也니 假令肝屬木이니 肝病에 虛則補足少陰腎經之合陰谷하니 以腎屬水爲木之母也오 實則瀉手厥陰心主之榮勞宮하니 以心主屬火爲木之子也라 然이나 詳察虛實하야 當先補後瀉하니 是는 助正退邪之要法也라 如正經之病而不中他邪 則

當徑取其厥陰肝經治之니 所謂自取其經也라 楊氏曰 不實不虛는 是諸藏不相乘也니 故로 云 自取其經이라하니라

【考察】

經言은 《正義》, 《懸解》에서 《靈樞·經脈篇》이라 하였으니 《靈樞·經脈篇》의 “盛則瀉之하고 虛則補之하며 不盛不虛는 以經取之라”하는 文句를 指稱하는 것이다.

虛者, 實者에 대해서 《集注》에서 楊玄操는 “春得腎脈爲虛邪……春得心脈爲實邪”라 하여 虛邪와 實邪 즉 五邪의 概念으로 認識하였으며 《圖註》에서는 “其脈實強…脈虛微”라 하여 脈의 強弱으로서 虛實을 認識하였고 《經釋》, 《正義》에서는 “虛는 血氣虛也오 實은 血氣實也라”하여 血氣의 虛實을 말하는 것이라고 認識하였으며 《研究》에서는 “虛는 正氣가 不足한 것이며 實은 邪氣가 實한 것이다”하여 正氣不足과 邪氣實로서 虛實을 認識하였다. 《圖註》以下 諸家의 認識은 《靈樞·經脈篇》의 文章에 忠實하여 虛實을 陰陽의 觀點에서 把握한 것이라면 楊玄操가 五邪로서 虛實을 認識한 것은 이미 五行의 概念이 結合된 것으로서 뒤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原則에 忠實한 見解이다.

補之, 瀉之에 대해서 《經釋》, 《正義》에서 “補之는 行針에 用補法也오 瀉之는 行針에 用瀉法也라”하여 針灸治療에서의 補瀉法을 行하는 것이라 하였고 《匯海》日醫騰萬卿注, 《古義》에서는 “補法爲隨오 瀉法爲迎이라”하여 具體적으로 迎隨補瀉를 指摘하였다.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內經》의 虛實補瀉의 原則에 五行相生概念을 結合시킨 것으로 《內經》의 見解와 區別되는 《難經》의 獨特한 見解로서 後代의 補瀉方法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다. 虛한데 그 母를 補하고 實한데 그 子를 瀉하는 理由에 對하여 《本義》, 《圖註》, 《正義》

에서 “子能令母實하고……母能令子虛也라” 하였으며 《經釋》에서 “母氣實則 生之益力이오……子氣衰則 食其母益甚이라”하였고 《古義》에서 “且夫謂母能令子虛라하니 則補母者는 治其本也니 其病從母及子也오 謂子能令母實이라하니 則瀉子者는 治其末也니 其病從子加母也라”하였다.

針灸治療上의 運用에 대한 各家의 註釋은 具體的인 方法에 있어서 서로 다른 意見을 보인다. 本經의 井, 榮, 俞, 經, 合穴을 取穴하여 治療하는 것과 十二經의 相互連繫下에 取穴하여 治療하는 두가지 方法으로 나눌수 있다.

1) 本經 井榮俞經合補瀉法(自經補瀉法): 十二經에 모두 井榮俞經合의 五俞穴이 있으며 各各 木火土金水의 五行에 配屬되어 있으니 五俞穴의 五行屬性에 따라 本經에서 取穴하는 方法이다. 例를 들어 肺經의 氣가 虛하면 肺本經의 俞穴 太淵을 取하여 補하니 肺經은 金에 屬하고 太淵穴은 土에 屬하며 土生金하니 이것이 虛者補其母이다. 가령 肺經의 氣가 實하면 實者瀉其子의 方法을 應用하여 本經의 合穴 尺澤을 取하여 瀉하니 尺澤穴은 水에 屬하며 金生水하니 이것이 實者瀉其子이다. 《本義》에서 “假令肝病에 虛即補厥陰之合하니 曲泉이 是也오 實則瀉厥陰之榮하니 行間이 是也라”하였으며 《集注》丁德用注에서 “假令 足厥陰肝之絡中이 虛하면 即補其足厥陰經 合하니 是母也오 實하면 即瀉足厥陰經 榮하니 是子也라”하였고, 《正義》에서 “假令肝病에 虛則補其母合하니 即足厥陰之合曲泉穴이 是也오 肝病에 實則瀉其子榮하니 即足厥陰之榮行間穴이 是也라”하였으니 모두 같은 의미이다.

2) 十二經 五臟補瀉法(他經補瀉法): 人體 十二經의 五行屬性에 따라 十二經 相互間에서 取穴하는 方法이다. 만일 肺經의 氣가 虛하면 虛者補其母의 方法에 따라 肺는 金에 屬하고 土는 金의 母가 되니

마땅히 足太陰脾經의 穴位를 取하거아 或은 脾經의 俞穴 太白(屬土)을 取한다. 만약 肺經의 氣가 實하면 實者瀉其子의 方法에 따라 腎은 水에 屬하고 水는 金의 子가 되니 腎經의 穴位를 取하거나 或은 腎經의 合穴 陰谷(屬水)을 取한다. 《集注》楊玄操注에서 “春得腎脈爲虛邪니 是는 腎虛하야 不能傳氣於肝이라 故로 補腎이라 腎有病則 傳之於肝하니 肝爲腎子라 故로 曰 補其母也라 春得心脈爲實邪니 是는 心氣盛實하야 逆來乘肝이라 故로 瀉心이라 心平則 肝氣通하니 肝爲心母라 故로 曰 瀉其子也라”하였으며 《圖註》에서 “肝自病에 得肝脈……其脈實強하면 則瀉胆經火穴이니 陽火乃木之子也오 脈虛微하면 則補膀胱經水穴이니 水乃木之母也라”하였고 《經釋》에서 “母는 生我之經이라 如肝虛則 補腎經也……子는 我生之經이라 如肝實則 瀉心經也”하였으며 《闡註》에서 “子母는 以五行으로 配臟腑而推之라”하였고 《哀腋》에서 “肝病에 虛則補足少陰腎經之合 陰谷하니 以腎屬水爲木之母也오 實則瀉手厥陰心主之榮 勞宮하니 以心主屬火爲木之子也라”하였으니 모두 같은 의미이다.

또한 《闡註》에서 “此章은 言針刺經穴 補瀉之大法이나 而亦可推之於用藥也라”하여 이 한가지 法則의 運用에 있어서 針灸上에만 局限되지 않고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應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만일 肺虛하면 培土生金法을, 肝實하면 瀉火平肝木法을 使用하는것 등이 모두 같은 意味이다.

“當先補之 然後瀉之”의 一句에 對해서 두가지 서로 다른 見解가 있다.

1) 《本義》의 滑伯仁은 “先補後瀉는 即後篇의 陽氣不足하고 陰氣有餘하면 當先補其陽하고 以後瀉其陰之意라 然이나 於此에 義| 不屬하니 非闕誤오 即衍文也라”하여 上下文과 더불어 서로 關聯이 없

으니 錯誤라고 하였다.

2) 《圖註》에서 “當先補其不足하고 後瀉其有餘라”하였으며《闡註》《匯海》丁履中注에서 “先補之 然後瀉之者는 言欲瀉其子也 而必先補其母也니 可見 古人必以固本爲要明矣라” 하고 《哀腋》에서 “當先補後瀉하니 是는 助正退邪之要法也라” 하여 補를 먼저 행한후에 瀉를 행하는 原則을 定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文全體의 內容으로 보아 《本義》의 內容이 妥當한 듯하다.

“不實不虛 以經取之”에 대하여 《本義》에서 “不實不虛 以經取之者는 卽四十九難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飲冷則傷肺 云云者니 蓋正經之自病者也라”하였으며 《集注》楊玄操注에서 “不實不虛는 是謂 藏不相乘也라”하였고 《正義》에서 “若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飲冷則傷肺하며 恚怒氣逆則傷肝하고 飲食勞倦則傷脾하며 久坐濕地 強力入水則傷腎은 正經自病이오 非五邪所傷者니 卽於本經取當刺之穴하야 以刺之오 不補母瀉子也라”하였으며 《懸解》에서 “自取其經은 取其本經이오 不取其子母也라”하였고 《匯海》騰萬卿注, 《古義》에서 “正經自病者는 本經之氣 | 失常하면 則流行錯亂이라 故로 用鍼에 治其經氣而已라 是其非有虛 又非其實이니 則何迎隨之施哉리오”하였으며 《哀腋》에서 “如正經之病而不中他邪 則當經取其厥陰肝經治之니 所謂自取其經也라”하였으니 以上の 各家注를 綜合하여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不實不虛에서의 虛, 實은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虛, 實과는 相對되는 말로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에서의 虛實은 그 病이 他經에서 傳變되어 온 것을 말하며, 不虛不實은 本經自病에 屬하여 他經에서 傳變되어 온것이 아니니 四十九難에서 말한 “若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飲冷則傷肺하며 恚怒氣逆則傷肝하고 飲食勞倦則傷脾하며 久坐濕地 強力入水則傷腎이라”한 것

이 이것이다. 다만 發病한 本經에서 取穴하여 治療하라는 意味이다.

徐靈胎가 말하길 “靈素補瀉之法을 살펴보면 或取本經하고 或雜取他經하며 或先瀉後補하고 或先補後瀉하며 或專補不瀉하고 或專瀉不補하며 或取一經하고 或取三四經하니 其說俱在하야 不可勝舉라 則補瀉之法은 亦其中之一端이니 若竟以爲補瀉之道盡如此하면 則不然也라” 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相生規律과 五行屬性을 結合한 一種의 方法일 뿐으로 以外에도 또한 相剋規律과 陰陽을 結合한 第二, 第三의 方法으로 治療해야 하며 만일 相生方面의 母子補瀉에 局限하여 絕對視한다면 治療의 能事를 다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2. 第七十難

【原文】

七十難曰 春夏刺淺 秋冬刺深者는 何謂也오 然이라 春夏者는 陽氣在上하야 人氣亦在上이라 故로 當淺取之오 秋冬者는 陽氣在下하야 人氣亦在下라 故로 當深取之⁽¹⁾니라 春夏에 各致一陰하고 秋冬에 各致一陽者는 何謂也오 然이라 春夏溫에 必致一陰者는 初下鍼할새 沈之至腎肝之部하고 得氣어든 引持之陰也⁽²⁾라 秋冬寒에 必致一陽者는 初內鍼할새 淺而浮之하야 至心肺之部하고 得氣어든 推內之陽也⁽³⁾라 是謂春夏必致一陰하고 秋冬必致一陽⁽⁴⁾이라

【各家注】

《本義》

[1]春夏之時에 陽氣浮而上하고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淺하니 欲其無太過也오 秋冬之時에 陽氣沈而下하고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深하니 欲其無不及也라 經曰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라하니 此之謂也라 四明陳氏曰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骨髓라하니 是는 淺深之應也라

[2-4]致는 取也라 春夏氣溫 必致一陰者

는 春夏養陽之義也라 初下針에 卽沈之하야 至腎肝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乃引針而提之하야 以至於心肺之分하니 所謂致一陰也오 秋冬氣寒 必致一陽者는 秋冬養陰之義也라 初內針에 淺而浮之하야 當心肺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推針而內之하야 以達於腎肝之分하니 所謂致一陽也라 此篇의 致陰致陽之設은 越人特推其理가 有如是者爾라 凡用針補瀉는 自有所宜니 初不必以是相拘也라

《集注》

[1] 丁曰 春夏刺淺 秋冬刺深者는 經言 春夏刺井榮은 從肌肉淺薄之處오 秋冬刺經合은 從肌肉深厚之處라하니 此是因時隨所在刺之也라

楊曰 經言 春氣在豪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이라하니 此는 四時之氣也라 其四時受病에 亦各隨正氣之淺深이라 故로 用針者는 治病에 各依四時氣之深淺而取之也라

[2] 虞曰 經言 春夏養陽은 言 取一陰之氣하야 以養於陽이니 慮成孤陽이라 致者는 到也며 及也니 言到於腎肝하야 引持一陰之氣니 肝腎은 乃陰也라

[3] 虞曰 經言 秋冬養陰은 言 至陰用事하야 無陽氣以養其陰이라 故로 取一陽之氣하야 以養於陰이니 免成孤陰也라 心肺는 乃陽也니 故言至心肺之部也라

[4] 楊曰 入皮三分은 心肺之部로 陽氣所行也오 入皮五分은 腎肝之部로 陰氣所行也라 陽爲衛 陰爲榮이니 春夏에 病行於陽이라 故로 引陰以和陽이오 秋冬에 病行於陰이라 故로 內陽以和陰也라

虞曰 楊氏所注에 言 三分爲心肺之部오 五分爲肝腎之部라하니 此乃玄珠密語라 分天地氣而言之니 故로 有 三分五分之設也라

丁曰 人之肌膚에 皆有厚薄之處라 但皮膚之上이 爲心肺之部하야 陽氣所行이오 肌肉之下이 爲腎肝之部하야 陰氣所行이라

其春夏엔 陽氣上騰하니 所用針에 沈手內鍼至腎肝之部하야 得氣어든 引持陰氣하야 以和其陽氣라 故로 春夏必致一陰也오 秋冬엔 陰氣下降하니 所用鍼에 浮手至心肺之部하야 得氣어든 推內鍼入하야 引持陽氣하야 以和其陰氣也라 故로 秋冬必致一陽也라 所以經云 春夏必致一陰하고 秋冬必致一陽也니라

《圖註》

[1] 此는 言 四時用針之不同也라 針은 以得氣로 爲主하니 氣在上則 用針淺하고 氣在下則 用針深矣라

[2-4] 致는 備也라 春夏之時에 其令溫하니 初下針卽 至腎肝之部하야 候針得氣하고 乃引針刺 至心肺之部하야 使陰氣로 以和于陽이니 此를 謂 春夏必致一陰也라하고 秋冬之時에 其令寒하니 初內針에 淺而浮之于心肺之部하야 候針得氣하고 推針而內至腎肝之部하야 使陽氣로 以和于陰이니 此를 謂 秋冬必致一陽也라하니라 內之肌肉을 謂之肺部니 肌肉上은 屬心肺而爲陽하고 肌肉下는 屬肝腎而爲陰이라 陽下之則爲補요 陰上之則爲瀉矣라

《經釋》

[1] 靈終始篇云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하니 刺此病者는 各以其時爲齊라하니 兩經互有異同이나 此이 其大較也라 陽氣는 謂天地之氣오 人氣는 謂榮衛之氣라 上은 則皮膚之上이오 下는 謂筋骨之中이니 淺取深取에 必中其病之所在하면 則易已也니라

[2] 致는 取也니 謂用針以取其氣也라 溫은 時令溫也니 陽盛則陰不足이라 故로 取陰氣하야 以補陽也라 沈之는 謂深入其針하야 至腎肝筋骨之位오 引은 謂引其氣而出之하야 至於陽之分也라

[3] 寒은 時令寒也니 陰盛則陽不足이라 故로 取陽氣하야 以補陰也라 浮之는 謂淺內其針하야 至心肺皮血之位오 推는 謂推其氣而入之하야 至於陰之分也라 此卽 經

文所謂 從陰引陽 從陽引陰之義라

《正義》

[1]靈樞終始篇曰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이라 하니 此는 四時之氣也라 其四時受病에 亦各隨正氣之淺深이니 故로 用鍼以治病者는 各依四時氣之淺深 而取之也라 陽氣者는 謂天地之氣也오 人氣者는 謂營衛之氣也라 上은 言皮肉之上이오 下는 言筋骨之中이니 淺取深取에 必中其病也라 滑氏曰 春夏之時에 陽氣浮而上하야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淺하니 欲其無太過也오 秋冬之時에 陽氣沈而下하야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深하니 欲其無不及也라 經曰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라하니 此之謂也라

[2-4]致는 取也라 溫은 時令溫也오 寒은 時令寒也라 經言 春夏養陽者는 陽盛則陰不足하니 必取一陰之氣하야 以養陽也오 秋冬養陰者는 陰盛則陽不足하니 必取一陽之氣하야 以養陰也라 沈之는 深入其鍼하야 至腎肝之位하고 引其陰氣하야 出之於陽也오 浮之는 謂淺內其鍼하야 至心肺皮血之位하고 推其陽氣하야 入之於陰也라 按컨대 滑氏曰 春夏氣溫 必致一陰者는 春夏養陽之義也라 初下鍼即 沈之 至腎肝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乃引鍼而提之하야 以至於心肺之分하니 所謂致一陰也오 秋冬氣寒 必致一陽者는 秋冬養陰之義也라 初內鍼에 淺而浮之 當心肺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推鍼而內之하야 以達於腎肝之分하니 所謂致一陽也라 然이나 致陰致陽之說은 越人特推其理가 有如是者耳라 凡用針補瀉는 自有所宜니 初不必以是相拘也라

《闡註》

[1]此는 言 針法은 以得氣爲主라 故로 氣淺針亦淺하고 氣深針亦深也니라 [2-4] 上文은 言 用針得氣之理하고 此는 言 用針致氣之法하야 以順四時陰陽之義니 謂春夏에 初內針深 至腎肝之部하야 得一陰之氣하고 即持鍼引 至心肺之部而留之오

秋冬에 初內針淺 至心肺之部하야 得一陽之氣하고 然後에 推之 至腎肝之部而留之也라

《懸解》

經은 素問四時刺逆從論諸篇이라 腎肝之部는 筋骨也오 心肺之部는 皮脈也라

《匯海》

滑伯仁注 [1]春夏之時에 陽氣浮而上하야 人之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淺하니 欲其無太過也오 秋冬之時에 陽氣沈而下하야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深하니 欲其無不及也라 經曰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라 하니 此之謂也니라 [2]致는 取也라 春夏氣溫 必致一陰者는 春夏養陽之義也라 初下鍼即 沈之 至腎肝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乃引鍼而提之하야 以至於心肺之分하니 所謂致一陰也오 秋冬氣寒 必致一陽者는 秋冬養陰之義也라 初內鍼에 淺而浮之 當心肺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推鍼而內之하야 以達於腎肝之分하니 所謂致一陽也라 此篇致陰致陽之設은 越人特推其理가 有如是者爾라 凡用針補瀉는 自有所宜니 初不必以是相拘也라

四明陳氏曰 [1]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骨髓하니 是淺深之應也라

徐靈胎注 [2-3]溫은 令時溫也니 陽盛則陰不足이라 故로 取陰氣하야 以補陽也라 沈之는 謂沈入其鍼하야 至腎肝筋骨之位오 引은 謂引其氣而出之하야 至於陽之分也라 寒은 時令寒也니 陰盛則陽不足이라 故로 取陽氣하야 以補陰也라 浮之는 謂淺內其針하야 至心肺皮血之位오 推는 謂推其氣而入之하야 至於陰之分也라 此即 經文所謂 從陰引陽 從陽引陰之義라

張氏箋正曰 [1]因稟天地之氣 與爲嘘吸이 固隨時令하야 以爲運用은 似古人所謂 春夏刺淺 秋冬刺深이나 未嘗非持之有라 故로 然須知鍼法治病에 諸俞穴淺深不同하야 各自有一定之分寸이라 甲乙經言之甚詳

하니 皆是伊古相承之舊說이라 應淺者는 必不可深鍼이오 應深者는 亦不當淺刺니 豈可呆守四時之一端이리오 壽頤於刺法하고 亦嘗得專家講授하야 知頭而腹背諸穴은 最多不可深鍼이니 深之必肇巨禍하고 而腹部四肢諸穴은 則多不可淺刺니 淺之亦復無效라 如手之合谷 足之三里 凡應用鍼에 皆必深入一寸以外에 於病始에 有應驗하니 此 何得隨時令爲進退리오 而知其一不知其二者니 乃知難經此說이 大有膠柱鼓瑟之弊라 必非上古鍼法之心傳이어늘 且人氣在上在下云云은 更有語病이라 蓋人身之氣 本是內外上下에 無所不到하니 乃謂春夏人氣在上則 將身半以下無是氣하고 秋冬人氣在下則 將身半以上無血氣하니 豈理也耶리오 [2-4]上文既謂春夏刺淺하고 而此文謂春夏致陰하니 沈之至腎肝之部則 又必刺深矣라 以子之矛로 陷子之盾하니 而其義必不可通이라 且春夏屬陽이어늘 何以用鍼에 反曰致陰하고 秋冬屬陰이어늘 何以用鍼에 反曰致陽이리오 於理更不充足이라 伯仁本義 最是篤信好古나 而至此하야 亦有微辭宜也니라

《校注》

多變하는 自然環境속에서 人體의 經氣 運行 또한 季節變化를 따라서 升降出入하는 變動이 있다. 이 때문에 針刺治療 또한 마땅히 서로 相應하니 春夏에는 陽氣가 升浮하므로 마땅히 淺刺하고 秋冬에는 陽氣가 潛藏하므로 마땅히 深刺한다. 이것은 中醫學에서 사람과 自然의 統一整體觀點이 針刺治療方面에서 具體的으로 表現된 것이다.

《校釋》

本難은 人體의 陽氣는 自然界 氣候의 變化에 따라 內外出入하는 變化가 있으며 이 때문에 刺針時에도 또한 春夏에는 마땅히 淺刺하고 秋冬에는 마땅히 深刺하는 區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春夏各致一陰 秋冬各致一陽”의 針刺手法을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이것은 《素問·四氣調神大論》의 “春夏養陽 秋冬養陰”과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精神과도 서로 一致되는 것이다. 이러한 ‘取陰養陽 取陽養陰’의 方法을 使用하여 陰陽을 調和하므로서 時令氣候의 變化에 適應하는 것이 疾病의 治療에 對해서도 有利하다.

《譯釋》

經脈營衛의 氣는 外部 自然의 氣候에 따라서 變遷하여 內外出入의 變化가 있으니 이러한 整體觀念은 다만 正常的인 生理狀態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反常的인 病理變化中에도 또한 이러한 것이다. 이 때문에 治療上에서도 四季의 氣候에 根據하여 刺針의 淺深手法을 定한다. 《靈樞·終始篇》에서 말하길 “春氣는 在毛하고 夏氣는 在皮膚하며 秋氣는 在分肉하고 冬氣는 在筋骨하니 刺此病者는 各以其時爲齊라” 하였으니 이것은 人體經脈의 氣와 時令氣候傳變의 適應狀況을 說明하는 것으로 丁德用은 “此是 四時隨所在刺之也라” 라고 하였다.

春夏는 氣候가 溫暖하여 人體의 陽氣가 外로 浮越하며 陰氣가 內로 潛伏하니 刺針手法을 應用하는데도 마땅히 먼저 深刺하여 筋骨部分의 陰氣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 得氣한 後에 引持外出한다. 秋冬은 氣候가 寒涼하여 人體의 陽氣가 外에서 緻密하며 陰氣가 內에서 固藏되어 있으니 刺針手法을 應用할 때에도 마땅히 먼저 皮毛部分의 陽氣가 있는 곳까지 淺刺한 然後에 안으로 깊이 멀어 넣는다. 이것이 “取陰養陽” “取陽養陰” 이니 時令에 適應하는 刺針手法이다. 이러한 原理에 關하여 虞庶는 “經言 春夏養陽은 言 取一陰之氣하야 以養於陽이니 慮成孤陽이라 致者는 到也며 及也니 言到於肝腎하야 引持一陰之氣니 肝腎은 乃陰也라 經言 秋冬養陰은 言 至陰用事하야 無陽氣以養其陰이

라 故로 取一陽之氣하야 以養於陰이니 免成孤陰也라 心肺는 乃陽也니 故로 言至心肺之部也라” 라고 認識하였다. 筋骨은 肝腎之氣의 外應部位이며 皮脈은 心肺의 外應部位이다. 이것은 引針手法에서 淺進皮膚, 深入筋骨을 말하는 것이다.

《難經》

人體의 陽氣는 自然界 氣候의 變化에 따라 內外出入하는 變化가 있다. 春夏는 氣候가 溫熱하여 人體陽氣 또한 肌膚의 表로 浮越하며 秋冬은 氣候가 漢冷하여 人體의 陽氣 또한 筋骨之離로 沈潛한다. 이러한 原理에 根據하여 本難에서는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針刺原則을 指摘하였다. 以外에도 또한 本難에서는 春夏에는 各各一陰之氣를 引하여 外出하므로써 養陽하고, 秋冬에는 各各一陽之氣를 引하여 入內함으로써 養陰하는 刺針手法을 紹介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中醫治療學中的 “因時制宜” 原則이 針灸治療法中에 應用된 것이다.

《今釋》

《靈樞終始篇》에서 말하길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하니 刺此病者는 各以其時爲齊라” 하였으니 이 한구절의 經文은 人體陽氣의 生理 및 病變은 四時氣候의 變化를 따라서 內外淺深의 서로다름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따라서 針刺上에서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道理를 提示하고 있다. 徐靈胎가 말하길 “陽氣는 謂天地之氣오 人氣는 謂榮衛之氣라 上은 謂皮肉之上이오 下는 謂筋骨之中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經文中的 陽氣在上은 天地의 氣가 外로 散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人氣在上은 榮衛의 氣가 皮肉之上으로 散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春夏의 現象이다. 冬에 陽氣在下는 天地의 氣가 內로 潛藏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人氣在下는 榮衛의 氣가 筋骨之中에 藏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丁德用은 말하길 “此是四時隨所在刺之也” 라 하였으니 이것은 針刺의 淺深은 陽氣의 在內 在外한 差異에 따르는 것임을 說明하고 있다.

《內經》에서 말하길 “春夏養陽 秋冬養陰”이라 하였으니 春夏는 陽盛陰不足하므로 一陰之氣를 取하여 養陽함이 重要하고 秋冬은 陰盛陽不足하므로 一陽之氣를 取하여 養陰함이 重要하다. 春夏에는 그 針을 腎肝의 位까지 深入하여 得氣하고 그 後에 引持外出하여 그 陰氣를 陽의 部位로 出하게 한다. 秋冬에는 그 針을 心肺皮肉의 位로 淺內하여 得氣하고 그 後에 깊이 안을 向하여 밀어넣어 그 陽氣를 推하여 陰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取陰養陽” “取陽養陰”으로 四時에 適應한 刺法이다.

《古義》

按 寸대 素問第六十四篇曰 春氣在經脈하고 夏氣在經絡하며 長夏氣在肌肉하고 秋氣在皮膚하며 冬氣在骨髓라 又 靈樞第九篇曰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이라 故로 刺肥人者는 以秋冬之劑하고 刺瘦人者는 以春夏之劑라 此篇은 蓋據是等說하야 論刺有淺深之法이라 細味其旨則 春夏二字에 微有淺深之分하고 若秋與冬 亦當然이니 乃知天時人氣 升降浮沈이 如合符節이라 亦當知瘦人雖秋冬이나 猶用春夏之法이오 肥人雖春夏나 更行秋冬之法이니 各隨其宜 臨機應變하야 允執厥中하라 是此篇之微意니 不可不察焉이라 後節又言 春夏致陰 秋冬致陽하니 則似與前說左나 而實不相乖라 言方刺之初에 先深下之 在筋骨之部하야 窺鍼下所動之氣하고 乃引浮之하야 留在淺處而後 行鍼久之니 此所謂春夏致一陰之法而 其治專在淺處라 蓋春夏는 陽氣升浮之時라 故로 人氣亦提舉하야 以從其道焉이라 其刺之初에 先淺內之 在皮膚之分하야 鍼下得氣하고 漸推下之하야 留在深處而後

行鍼久之니 此所謂秋冬致一陽之法而 其治專在深處라 蓋秋冬은 陽氣降沈之時라 故로 人氣亦重墜하야 以從之耳라 兩初字를 勿輕看過니 此蓋下鍼初一手法而 非謂至其經 猶且如是矣라 讀者察諸니라

《哀腋》

[1]靈樞終始篇曰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이라 滑氏曰 春夏之時에 陽氣浮而上하야 人之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淺하니 欲其無大過也오 秋冬之時에 陽氣沈而下하야 人氣亦然이라 故로 刺之當深하니 欲其無不及也라 經曰 必先歲氣하야 無伐天和라하니 此之謂也라

[2-4]致者는 猶言以此而致於彼也라 春夏氣溫 必致一陰者는 初下針卽 沈之至腎肝筋骨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乃引針而提之하야 以致於心肺之分하야 使陰氣로 以和陽이니 所謂致一陰也라 秋冬氣寒 必致一陽者는 初內針에 淺而浮之 當心肺血脈皮膚之部하야 俟其得氣하고 推針而內之하야 以達於腎肝之分하야 使陽氣로 和陰이니 所謂致一陽也라

【考察】

本難은 于先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原理를 說明하여 用針에서 季節變化에 따른 得氣의 理致를 말하고 다시 “春夏各致一陰 秋冬各致一陽”의 理致를 說明하여 用針에서 致氣之法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四時陰陽의 理致에 따르는 것이다.

本難의 七十難曰 뒤에 今本에는 經言 二字가 없으나 《集注》 《圖註》 《正義》 《闡註》 《懸解》 《校注》 《今釋》 에는 經言 二字가 있으니 《懸解》에서 具體的으로 “經은 《素問·四時刺逆從論》 諸篇이다”라고 하였다.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文句가 《內經》에서 具體的으로 言及되지는 않았다. 다만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春氣在經脈하고 夏氣在孫絡하며 長夏氣在肌肉하고

秋氣在皮膚하며 冬氣在骨髓中이라”하여 人體의 經氣運行은 自然界 氣候의 變遷에 따라 升降出入하는 變化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靈樞·經脈篇》에서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하니 刺此病者는 各以其時爲齊라”이라하여 이러한 自然界 氣候의 變遷에 따른 人體의 經氣運行의 變化는 生理的인 變化뿐만이 아니라 針灸治療에서도 重要한 基準이 됨을 밝히고 있다. 《難經》에서는 이러한 《內經》의 原理를 根據로 하여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法則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陽氣란 自然界의 氣運을 말하며 人氣란 人體 經脈의 氣運을 말하는 것으로 《經釋》《正義》에서 “陽氣는 謂天地之氣오 人氣는 謂榮衛之氣라”하였다.

人氣在上, 人氣在下에서의 上下의 意味를 살펴보면 《經釋》《正義》에서 “上은 則皮肉之上이오 下는 謂筋骨之中이라”하였고 《闡註》에서 “氣淺……氣深……”이라하여 淺深을 뜻하는 것으로 認識하였으며 《匯海》張氏箋正注에서는 “且人氣在上在下云은 更有語病이라 蓋人身之氣 本是內外上下에 無所不到하니 乃謂春夏人氣在上則 將身半以下無是氣하고 秋冬人氣在下則 將身半以上無血氣하니 豈理也耶리오”하여 上下가 垂直的인 意味의 上下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淺取, 深取에 對하여 《古義》에서 “刺肥人者는 以秋冬之劑하고 刺瘦人者는 以春夏之劑라……亦當知 瘦人雖秋冬이나 猶用春夏之法이오 肥人雖春夏나 更行秋冬之法이니 各隨其宜 臨機應變하야 允執厥中하라”하였으니 本難의 大義가 비록 季節(時間)에 따른 經氣運行의 差異와 그에 따른 刺針의 原則(因時制宜)을 論하고 있으나 이러한 經氣運行의 差異는 사람에 따라서 (肥人, 瘦人)도 區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季節에 關係없이 淺取할 때와 深

取할 때의 구별이 있음(因人制宜)을 밝히고 있다. 또한 《集注》丁德用注에서 “春夏刺井榮하니 從肌肉淺薄之處오 秋冬刺經合하니 從肌肉深厚之處라”하여 淺取는 井榮穴을 刺針하는 것을 말하며 深取는 經合穴을 刺針함을 말한다고 하였고 《匯海》張氏箋正注에서 “然須知鍼法治病에 諸俞穴深淺不同하야 各自有一定之分寸이라…知頭而腹背諸穴은 最多不可深鍼이니…腹部四肢諸穴은 則多不可淺刺라”하여 모든 經穴에는 各各의 位置에 따라 肌肉의 厚薄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淺刺할 수 없는 穴과 深刺할 수 없는 穴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라도 穴位에 따라 人體 經氣運行에 淺深의 區別이 있음을 論한 것이다.

‘春夏各致一陰, 秋冬各致一陽’에 대하여 《正義》에서 “致는 取也라…必取一陰之氣하야 以養陽也오…必取一陽之氣하야 以養陰也라”하여 一陽之氣와 一陰之氣를 取한다는 意味로 認識하였으니 下文의 “引持之陰, 推內之陽”에 초점을 맞춘 見解로서 《本義》《經釋》에서도 모두 取의 意味로 認識하였다. 《集注》虞庶注에서는 “致者는 到也며 及也니 言到於腎肝이라”하였고 《哀腋》에서 “致者는 猶言以此而致於彼也라”하여 모두 一陽의 部位(心肺之部), 一陰의 部位(腎肝之部)에 到達한다는 意味로 認識하였으니 下文의 “至腎肝之部, 至心肺之部에 초점을 맞춘 見解이다. 또한 《圖註》에서 “致는 備也라”하였으니 文字의 뜻은 다르나 그 意味는 《正義》의 見解와 類似한 점이 많다. 그러나 《本義》에서 “春夏氣溫 必致一陰者는 春夏養陽之義也라…秋冬氣寒 必致一陽者는 秋冬養陰之義也라”하고 《集注》虞庶注에서 “經言 春夏養陽은 言 取一陰之氣하야 以養於陽이니 慮成孤陽이라…經言 秋冬養陰은 言…取一陽之氣하야 以養於陰이니 免成孤陰也라”하며 《正義》에서 “經言 春夏養

陽者는 陽盛則陰不足하니 必取一陰之氣하야 以養陽也오…秋冬養陰者는 陰盛則陽不足하니 必取一陽之氣하야 以養陰也라”하여 “春夏各致一陰 秋冬各致一陽”의 大義가 《素問·四氣調神大論》의 “春夏養陽 秋冬養陰”의 精神과 一致하며 또한 《經釋》에서 “此即 經文所謂 從陰引陽 從陽引陰之義라”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精神과도 一致됨을 밝혔으니 《正義》의 見解(一陽之氣와 一陰之氣를 取한다)가 가장 妥當한 듯 하다.

心肺之부와 腎肝之부에 대하여 《集注》虞庶注에서 “肝腎은 乃陰也라…心肺는 乃陽也라”하고 丁德用注에서 “皮膚之上이 爲心肺之部하야 陽氣所行이오 肌肉之下이 爲腎肝之部하야 陰氣所行이라”하였으며 《圖註》에서 “肌肉上은 屬心肺而爲陽하고 肌肉下는 屬肝腎而爲陰이라”하였고 《懸解》에서 “腎肝之部는 筋骨也오 心肺之部는 皮脈也라”하였으니 以上の 註釋을 綜合하여 보면 心肺之部는 陽의 部位로서 皮膚之上(肌肉上, 皮脈)의 淺部를 뜻하며 腎肝之部는 陰의 部位로서 肌肉之下(筋骨)의 深部를 뜻한다고 認識하였다. 《集注》楊玄操注에서 “入皮三分은 心肺之部로 陽氣所行也오 入皮五分은 腎肝之部로 陰氣所行也라”하여 具體적으로 三分, 五分の 說을 提起하였으니 獨特한 見解라고 할 수 있다.

春夏溫, 秋冬寒에 대하여 《經釋》에서 “溫은 時令溫也니 陽盛則陰不足이라…寒은 時令寒也니 陰盛則陽不足이라”하여 春夏秋冬의 氣候變化에 따른 陰陽盛衰로서 認識하였으며 《集注》丁德用注에서는 “其春夏엔 陽氣上騰이오…秋冬엔 陰氣下降이라”하여 陰氣, 陽氣의 上下淺深으로 認識하였다.

沈之, 淺而浮之에 대하여 《經釋》에서 “沈之는 謂深入其針하야 至腎肝筋骨之位오…浮之는 謂淺內其針하야 至心肺皮血之

位라"하였으니 별다른 異見이 없다. 다만 《古義》에서 沈之 앞에 深而 二字를 插入하여 淺而浮之와 맞구를 이루게 해 놓았으니 옳은 듯 하다.

得氣에 대하여 《古義》에서 "窺鍼下所動之氣"라 하였으니 刺針時에 針根에서 沈重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闡註》에서 말한 "得其一陰之氣……得其一陽之氣"의 뜻이다.

引持之陰에 대하여 《集注》虞庶注에서 "引持一陰之氣"라 하였고 《正義》에서 "引其陰氣하여 出之於陽也"라 하였으며 《經釋》에서 "引은 謂引其氣而出之하여 至於陽之分也"라 하였으니 陰은 一陰之氣(陰氣)를 말하며 引持(或은 引)는 一陰之氣를 陽之分으로 이끌어 내는(出之) 것을 말한다고 認識하였다. 그러나 《本義》에서는 "乃引針而提之하여 以至於心肺之分"이라 하였고 《闡註》에서 "卽持鍼引 至心肺之部而留之"라 하였으며 《古義》에서 "乃引浮之하여 留在淺處而後 行鍼久之"라 하였으니 引은 針을 心肺之部(淺部)로 이끌어 내는(提之, 浮之) 것이라고 하여 針刺手法에서의 具體的인 動作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니 《圖註》《衰腋》등도 같은 意味로 보았다. 引持를 한 單語로 본다면 虞庶 등의 註釋과 《本義》등의 註釋이 大義에는 별다른 差異가 없고 다만 引持뒤에 陰字가 있으니 虞庶 등의 見解를 따르는 것이 解釋을 하는데에는 妥當한 듯 하다. 그러나 《本義》등의 註釋에서는 引字만을 使用(引針)하였으니 引字와 持字를 區分하여 引은 즉 針을 引하는 것(引針而提之)이며 持는 즉 陰氣를 이끄는 것(持一陰之氣)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推內之陽에 대해서도 《經釋》에서 "推는 謂推其氣而入之하여 至於陰之分也"라 하였고 《正義》에서 "推其陽氣하여 入之於陰也"라 하였으니 陽은 陽氣를 말하며 推內는 推入의 뜻으로 陽氣를 陰之分으로 밀

어 넣는것을 말한다고 認識하였다. 그러나 《圖註》에서는 "推針而內 至腎肝之部"라 하였고 《衰腋》에서 "推針而內之하여 以達於腎肝之分"이라 하였으니 推은 針을 腎肝之部(深部)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하여 針刺手法에서의 具體的인 動作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推內를 한 單語로 본다면 解釋에 있어서 뒤의 陽字를 보아 《正義》의 "推其陽氣하여 入之於陰也"라는 意味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나 本難의 大義가 針法에 있으므로 推는 針을 推下하는 것이며 內는 納과 通하고 入과 通하니 陽氣를 內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初下鍼 沈之, 初內鍼 淺而浮之"를 認識함에 있어서 《匯海》張氏箋正注에서 "上文既謂春夏刺淺하고 而此文謂春夏致陰하니 沈之至腎肝之部則 又必刺深矣라 以子之矛로 陷子之盾하니 而其義必不可通"이라 하여 上文의 "春夏刺淺 秋冬刺深"과 서로 矛盾된다고 하였으나 《古義》에서 "言方刺之初에 先深下之 在筋骨之部하여 窺鍼下所動之氣하고 乃引浮之하여 留在淺處而後 行鍼久之니……其治專在淺處라……其刺之初에 先淺內之 在皮膚之分하여 鍼下得氣하고 漸推下之하여 留在深處而後 行鍼久之니……其治專在深處라……兩初字를 勿輕看過니 此蓋下鍼初一手法而 非謂至其經 猶且如是矣"라 하여 初字를 가변이 보아 넘겨서는 아니되니 이것은 針刺時의 初一手法를 말함이지 治療의 主안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張氏의 見解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였다.

IV. 結 論

1. 第六十九難

本難은 五行相生의 理論을 使用하여 《靈樞·經脈篇》의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라는 句節을 解釋하였으

니 卽 臟腑經脈所屬五行의 母子關係에 根據하여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本經自病 取其本經의 治療方法을 使用하여 偏盛偏衰를 調節하므로써 扶正祛邪, 疾病治愈의 目的을 이루는 것이다. 具體的인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針灸治療上의 運用은 두 가지 方法으로 나눌수 있다.

1) 本經 井榮俞經合補瀉法(自經補瀉法): 十二經에 모두 井榮俞經合의 五俞穴이 있으며 各各 木火土金水의 五行에 配屬되어 있으니 五俞穴의 五行屬性에 따라 本經에서 取穴하는 方法이다. 例를 들어 肺經(金)의 氣가 虛하면 虛則補其母의 原則에 따라 肺本經의 俞穴 太淵(土)을 取하여 補하며 肺經의 氣가 實하면 實則瀉其子의 原則에 따라 本經의 合穴 尺澤(水)을 取하여 瀉한다.

2) 十二經 五臟補瀉法(他經補瀉法): 人體 十二經의 五行屬性에 따라 十二經 相互間에서 取穴하는 方法이다. 만일 肺經(金)의 氣가 虛하면 虛者補其母의 方法에 따라 足太陰脾經(土)의 穴位를 取하거나 或은 脾經의 俞穴 太白(土)을 取한다. 만약 肺經의 氣가 實하면 實者瀉其子의 方法에 따라 腎經(水)의 穴位를 取하거나 或은 腎經의 合穴 陰谷(水)을 取한다.

所謂 “不實不虛 以經取之” 는 本經에서 스스로 發한 病을 말하는 것으로 四十九難에서 말한 “若憂愁思慮則傷心하고 形寒飮冷則傷肺하며 恚怒氣逆則傷肝하고 飮食勞倦則傷脾하며 久坐濕地 強力入水則傷腎이라” 한 것이 이것이니 他經虛實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 病變 自體에 또한 虛實의 區分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治療時에 其他經脈上에서 補母 或은 瀉子하는 것이 不必要하며 다만 本經의 虛實狀況을 살펴서 本經의 俞穴을 取하여 補瀉方法을 使用함으로써 治療의 目的을 이룰 수 있다.

補母瀉子治法의 應用에 關係서는 또한

반드시 疾病의 具體的인 狀況을 살펴서 決定해야 한다. 後世에 또한 이 한가지 法則의 運用에 있어서 針灸上에만 局限되지 않고 藥物治療에 있어서도 指導原則을 定하고 있다. 만일 肺虛할 때는 培土生金法을, 肝實할 때는 瀉火平木法등을 使用하니 모두 같은 意味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相生規律과 母子虛實을 結合한 一種의 方法일 뿐, 以外에도 또한 相剋規律과 陰陽을 結合한 第二 第三 등등의 方法으로 治療해야 한다. 만일 相生方面의 母子補瀉에 局限한다면 治療의 能事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2. 第七十難

人體의 經氣運行은 自然界 氣候의 變遷에 따라 升降出入하는 變化가 있으며 이러한 變化는 다만 正常的인 生理狀態에서 만 이런 것이 아니라 病理變化中에서도 이러한 것이니 이 때문에 針刺治療 또한 四時의 氣候變遷에 따라 春夏에는 陽氣가 升浮하므로 마땅히 淺刺하고 秋冬에는 陽氣가 潛藏하므로 마땅히 深刺하는 區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春氣在經脈하고 夏氣在孫絡하며 長夏氣在肌肉하고 秋氣在皮膚하며 冬氣在骨髓中이라” 하였으며 또한 《靈樞·終始篇》에서 말하길 “春氣在毛하고 夏氣在皮膚하며 秋氣在分肉하고 冬氣在筋骨하니 刺此病者는 各以其時爲齊라” 하였으니 이것은 人體의 生理및 病變은 四時氣候의 變化를 따라서 內外淺深의 서로 다름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따라서 治療面의 針刺上에서도 春夏刺淺 秋冬刺深의 區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素問·五常政大論》에서 말한 “必先歲氣하여 無伐天和라” 하는 意味인 것이다.

以外에도 또한 本難에서는 “春夏各致一陰 秋冬各致一陽” 의 針刺手法을 具體的으로 說明하였다. 이것은 《素問·四氣

調神大論》의 “春夏養陽 秋冬養陰” 과 《素問·陰陽應象大論》의 “從陰引陽 從陽引陰”의 精神과도 서로 一致되는 것이니 春夏에는 氣候가 溫暖하여 人體의 陽氣가 外로 浮越하며 陰氣가 內로 潛伏하여 陽盛陰不足하므로 一陰之氣를 取하여 養陽함이 重要하다. 그러므로 刺針手法을 應用하는데도 마땅히 먼저 筋骨部分(腎肝之位)의 陰氣가 있는 곳까지 深刺하여 得氣하고 그 後에 針을 淺部(陽之分)로 이끌어내어 그 陰氣를 陽의 部位로 出하게 하므로서 養陽한다. 秋冬에는 氣候가 寒涼하여 人體의 陽氣가 外에서 緻密하며 陰氣가 內에서 固藏되어 陰盛陽不足하므로 一陽之氣를 取하여 養陰함이 重要하다. 그러므로 刺針手法을 應用할 때에도 마땅히 먼저 皮毛部分(心肺之位)의 陽氣가 있는 곳에 淺刺하여 得氣한 然後에 針을 깊이 深部(陰之分)로 밀어넣어 그 陽氣를 陰의 部位에까지 入하게 하므로서 養陰한다. 이러한 “取陰養陽 取陽養陰”의 方法을 使用하여 陰陽을 調和하므로서 時令氣候의 變化에 適應하는 것이 疾病의 治療에 對해서도 有利하다. 이러한 것은 韓醫治療學中の “因時制宜” 原則이 針灸治療法中에 應用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 李晚熙: 黃帝內經靈樞九鍼十二原에 對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1994.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校大學院, 1993.
4.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5. 丁錦: 古本難經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6.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7.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8. 勝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9. 加藤宗博: 難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10. 黃維三: 難經發揮, 臺北, 中國醫藥學院, 1989.
11.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
12. 王九思: 難經集注, 臺北, 臺北中和書局, 1985.
13.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大學書局, 1976.
14.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1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1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17.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18.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서울, 一中社, 1991.
19.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台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20. 王洪圖: 難經, 北京, 春秋出版社, 1988.
2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22.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2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24. 民衆書林編輯局編: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6.